

## 러시아 역사가의 스탈린 신화 깨기 기획

[서평] O.V. Хлевнюк (2015),

Сталин, Жизнь одного вождя, Москва, 464쪽.

노 경 덕\*

### I

20세기의 역사적 인물 중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만큼 양극단의 평가를 받았던 경우는 없을 것이다. 대중 서적들은 물론이고, 매우 전문적인 학술 저작들에서조차 그는 매우 상반된 이미지로 재현된다. 그가 폭력적인 독재자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만, 스탈린 정책의 성격 및 효과, 역사적 기능, 그리고 후대의 영향 등을 두고는 첨예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서양의 자본가 계급과 제국주의, 그리고 파시즘으로부터 공산주의 운동과 체제를 지켜낸 영웅, 그리고 러시아를 초강대국으로 이끈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한 쪽 끝에 있다면, 20세기 최대의 학살자,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을 ‘타락’시킨 기회주의적 권력자의 그것이 그 반대편에 위치한다.

이런 스탈린에 대한 양극단의 평가는 20세기와 현 세기의 정치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냉전시대의 반공주의와 반미주의, 그리고 진보 진

---

\*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초교육학부 조교수

영 내부의 노선 논쟁은 각기 스탈린의 이미지를 매우 다른 것으로 만드는 이념적 원천이었다. 냉전이 사실상의 서방 진영 승리로 끝나면서,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에 소련 스스로가 스탈린을 철저히 비판하면서, 소련 독재자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것으로 최종 정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소련 해체 이후 신생 러시아가 겪은 대혼란 속에 피어난 반서방주의 정서와 소련 시대에 대한 노스텔지어는 스탈린 긍정론을 다시 대두시켰다. 아주 최근에는, 정관계와 부유층의 계속된 타락과 부패에 진력인 난 러시아인들이 스탈린 숙청을 이런 모습에 대한 ‘정화’ 작업으로 해석하고 그 당시를 평등의 시대로 기억하는 스탈린 향수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시민사회나 일부 지식인들은 이런 스탈린 긍정론과 향수를 푸틴 정부의 장기집권 및 독단적 국정운영에 대한 정당화 기제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들은 스탈린과 그의 시대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시급히 재생시키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존 최고의 스탈린 시대 역사 전문가 중 하나이며 서방 학계에 가장 널리 알려진 러시아 역사가 올레그 흐레브뉴크(O.B. ХЛЕВНИУК)이 스탈린 전기를 펴냈다. 러시아의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그는 본서에 스탈린 신화 깨기라는 분명한 현실 정치적 목표를 담았다. 흐레브뉴크의 전기는 지금까지 그를 비롯한 수많은 스탈린 전문가들이 쌓아왔던 연구 성과들의 차분한 학문적 종합이라기보다는 현재 러시아의 정치 및 사회 분위기에 대한 시의적 대응으로 기획된 것이다.<sup>1)</sup> 그는 무릇 많은 역사가들의 중국적인 꿈인 전기 저술 작업을 한가롭게 훑날로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 작업을 위해, 흐레브뉴크는 “러시아 문서고 자료의 달인”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방대한 문서들을 소화하였다. 우선 그는 공간된 기록들은 물

1) 본서는 러시아와 미국에서 동시에 출판되었다. 러시아 판에는 주로 러시아 독자를 위한 「스탈린 신화」라는 장이 마지막에 붙어있는데, 이는 미국 번역서에는 극히 일부분만 포함되었다. Oleg V. Khlevniuk (2015), *Stalin: New Biography of a Dictator*, translated by Nora S. Favorov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론이고, 의사록이나 의결문 등 문서고 속에 있는 정책 결정 관련 미출간 문건들을 두루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런 공식 자료들만으로는 당시의 정황이나 스탈린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흐레브누크는 스탈린 개인 파일 철에 소장된 보다 ‘구체적인’ 사료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그중 스탈린의 서간문들, 특히 소련 독재자가 남러시아 다차에서의 휴가 기간 중 국정 논의를 위해 그의 ‘수하’ 정치인들과 주고받았던 서신들은 흐레브누크의 자료 중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스탈린 시대 고위 정책은 매우 소수 인원에 의해 결정되었고, 많은 경우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기록한 속기록과 같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스탈린과 여타 정치인들 간의 실제 대화 내용에 상응하는 이 같은 서신들은 귀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흐레브누크의 생각이다. 또한, 스탈린과 그 주변의 생생한 일화들을 담고 있는 회고록들도 그의 자료 목록 중 중요한 자리를 점했다. 다만, 회고록 특유의 주관성 문제 때문에 흐레브누크는 가장 객관적이라 공인된 문건만을 활용하겠다고 서론에서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흐레브누크의 전기는 정치가 스탈린 개인을 둘러싼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의 정책이 사회 전반에 미친 구체적인 결과에도 함께 주목했기에, 정치사가들을 넘어 사회사가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자료들까지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스탈린 시대 일반민들이 직접 남긴 글들과, 그들의 상황과 생각을 보여주는 정보보고서들은 그 주요한 예들이다.

전기라는 역사학의 장르가 책의 구성 면에서 특이한 형식을 취하기 어려운 것과는 달리, 본서는 스탈린의 성장기부터 최후까지를 순서대로 따라가는 일반적인 연대순 구성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스탈린 연구의 핵심 쟁점들을 그 사이사이에 배치시키는 주제별 구성 방식을 함께 사용했다. 흐레브누크는 그 주제들을 스탈린이 뇌출혈로 쓰러졌던 1953년 3월 1일 직전부터 그의 사망, 그리고 장례까지의 일상을 묘사하는 가운데 하나씩 제시했다. 이에는 스탈린의 국정운영 스타일, 정치적 억압, 세력관, 가족, 그리고 건강 문제 등이 포함되었다.

## II

본서의 궁극적 목표인 스탈린 신화를 깨기 위한 흘레브눅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스탈린이 펼쳤던 여러 정책들을 실정으로 규정하고 그 실정을 낳은 원인들을 파헤치는 작업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작업은 그 실정이 야기한 결과, 즉 소련 사회가 겪었던 크나큰 희생과 피해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선, 스탈린 실정의 원인을 흘레브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첫 번째 원인은 스탈린 독재 체제의 성격과 운용방식에 있었다. 흘레브눅에 의하면, 스탈린은 도전받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권력 소유자였다. 이런 그의 지위는 좌파와 우파 경쟁자들을 물리친 1920년대 말 이후 공고화되었다. 일부 정치국 지도자들의 손에 남아있던 약간의 자율성조차 1936년 키로프 암살 사건 이후 불어 닥친 대숙청으로 완전히 사라지면서, 스탈린의 개인 권력은 그 정점을 찍었다. 전쟁 기간 동안 일부 국내 현안의 처리가 여타 지도자들에게 맡겨지는 권력 이완 현상이 보이기도 했지만, 전후에 독재자는 곧 그의 독점적 권력을 되찾아왔다. 이와 같은 묘사를 통해, 흘레브눅은 일부 서방 학자들이 제기했던 소위 “약한 독재자”론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사실, 구소련 문서고가 개방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소련 고위 정치에서 스탈린의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었음을 인정한다.<sup>2)</sup> 하지만 스탈린과 그 주변의 핵심 정치인들 관계에 대한 평가는 현재에도 여전히 논란 중이다. 게티(J. Arch Getty)를 비롯한 몇몇 서방의 진보적 학자들이 몰로토프나 즈다노프 등을 나름의 자율적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정치인으로 묘사했던 것에 비해,<sup>3)</sup> 흘레브눅은

2) James Harris (2003), “Was Stalin a Weak Dictator,” *Journal of Modern History* 75, no. 2 참조.

3) J. Arch Getty (2005), “Stalin as Prime Minister: Power and the Politburo,” in Sarah Davies and James Harris eds., *Stalin: A New History* (Cambridge, Cambridge

이들이 스탈린의 하수인, 또는 심지어 노예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스탈린은 공개적 모욕, 좌천 그리고 주기적인 숙청과 위협 등의 방법을 통해 이들을 통제했으며, 그 결과 이 ‘노예’들에게 ‘주인’은 그저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2차 대전 중후반만을 예외로 한다면, 스탈린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진정한 토론이나 그의 의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있을 수 없었다. 중요 사안은 스탈린이 혼자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며, 이 독단은 수많은 실정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흘레브넵의 주장이다.

스탈린 실정의 또 하나의 원인을 흘레브넵은 그의 세계관에서 찾는다. 스탈린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매몰되어 있었으며, 이는 그의 독서 목록과 장서를 통해서 증명된다. 스탈린에게 그것은 사회를 계급투쟁이라는 틀로 단순화해서 이해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실제 사회의 복잡한 관계들과 양상들은 그의 안중에서 사라졌다. 그의 이념은 경직된 교조주의일 뿐이었다. 더욱이 스탈린은 계급간의 적대성을 과장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단순하고 전투적인 인식 틀 속에서, 계급의 적들, 또는 인민의 적들이라는 상상이 나올 수 있었으며 스탈린에게 이는 소련 내부와 외부 모두에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스탈린의 세계관에서는, 이 적들에 대한 탄압과 대결은 필연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는 무시될 수 있었다. 한편, 흘레브넵에 의하면, 스탈린은 강력한 국가주의자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러시아의 정치 전통과 관련이 있었다. 그는 국가의 절대 권력을 신봉하면서 국가의 오류나 과오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그 정책들의 필연성만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스탈린 체제의 실정을 낳았던 세 번째 원천은 이런 세계관과 결합되었던 스탈린 개인의 성격이었다. 흘레브넵의 스탈린 성격 이해는 과거 반공주의 감성으로 무장했던 서방 학자들의 정신 병리학적 해석과는 전혀 다르다. 그는 우선 스탈린의 유년 시절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구타

와 학대를 성격 형성에 중요한 경험으로 보았던 터커(Robert Tucker) 등의 연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sup>4)</sup> 스탈린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체벌이나 구타는 당대 러시아 제국의 일반적 분위기에 비추어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스탈린은 독자로서 어머니의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으며 나름 편안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sup>5)</sup> 스탈린의 독재 권력에 대한 추구는 정신 병리학적 성격의 소산이 아니라 차가운 ‘합리성’, 즉 계산의 결과였다는 것이 흘레브누크의 생각이다. 그는 훗날의 독재자가 신학교를 나와 전업 혁명가가 되었던 밑바탕에는 그것이 권력을 쥐는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길이라는 스탈린의 계산적 판단이 있었다고 본다. 1920년대 말의 농업집산화 시도나 무리한 공업화 목표치 설정 등도 비이성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그의 독재 권력 달성을 위한 ‘합리적’ 정치 수단으로 의도된 것이었다. 특히, 그가 이미 제거했던 좌파의 경제 정책을 스탈린이 1920년대 말 차용했던 것은 우파 정치인들과의 집단 지도체제를 파괴하기 위한 계산된 책략이었다. 1930년대 말 대숙청의 회오리 역시, 스탈린 편집증의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독재 체제 유지와 강화의 수단으로서 그가 계획적으로 일으킨 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런 차가운 ‘합리성’은 그의 냉혹한 성격과 공존했다. 흘레브누크는 스탈린의 냉혹함을 드러내기 위해 구체적 예화들을 제시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련 독재자에 대한 감정어린 논평, 또는 도덕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는다. 흘레브누크에 의하면, 스탈린은 일반민들의 고통스런 현실이나 심지어 목숨까지도 크게 개의치 않는 냉혹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1920년대 말 농업정책의 실패로 농촌의 대혼란과 참

4) Robert Tucker (1973), *Stalin as Revolutionary, 1879-1929: A Study in History and Personality* (New York: W. W. Norton).

5) 이는 다른 전기 작가들의 최근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A. В. Островский . Кто стоял за спиной Сталина? СПб., 2002. 그리고 Ronald G. Suny, *Stalin and the Russian Revolutionary Movement: From Koba to Commiss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orthcoming).

상이 빚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그는 무자비하게 농업집산화를 밀어붙였다. 1941년 9월 키예프가 나치 군에 포위된 절망적 상황에서도, 스탈린은 그 수많은 목숨의 걸려있던 후퇴 작전을 단호히 거부하여 거대한 수의 인명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전후에 다시 닦쳤던 기근 시기에도, 스탈린은 그 비극을 겪는 농민들의 실상보다는 곡물 등 국가 재산 관리의 엄중성에 더 신경을 썼다. 또한 스탈린은 처형이라는 수단에 거리낌이 없는 냉혈한이었다. 내전 시기 그의 책임 아래 있던 짜리친 부대에서의 구(舊)제국 장교들 집단 처형이나, 1930년대 초의 가혹했던 부농 척결 운동, 그리고 1930년대 말 대숙청 시기의 수많은 총살은 모두 그가 직접 내린 결정에 의해 집행되었다. 흐레브누에 의하면, 스탈린은 “손을 더럽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공산주의자는 필요 없다는 언급을 할 정도의 인물이었다(418면). 이런 스탈린의 냉혹함에 첨병 역할을 했던 것이 일종의 테러 기구였던 비밀경찰이었다. 흐레브누는 1920년대 경쟁자들과의 권력투쟁 시기부터 이미 스탈린은 비밀경찰과 가까웠고, 이 관계는 그의 최후까지 이어졌다고 말한다. 물론 스탈린의 냉혹함은 자신의 첨병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1930년대 중반 이후 비밀경찰은 스탈린이 가장 자주 건드렸던 숙청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숙청을 넘어, 스탈린은 이 테러 기구를 사실상의 ‘개인적’ 살해에까지 이용했다고 흐레브누는 주장한다.

요컨대, 스탈린의 거듭된 실정은 그의 독단을 가능케 했던 독재 정치와 그의 세계관 및 성격이 결합된 결과였다는 것이 흐레브누의 논지이다. 이런 실정을 양산한 스탈린 체제는, 그에 의하면, 전체주의 사회라는 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다. 테러의 국가도구화, 전통적 사회관계의 파괴, 사회의 원자화, 그리고 이데올로기 조종 모두가 소련 체제에 존재했다고 인정한다는 점에서 흐레브누의 개념은 과거 1950년대 서방 사회과학자들과 페레스트로이카 시대 소련 지식인들의 전체주의론을 부활시킨 것이다. 그간 이미 많은 이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이 낡은 틀을 그가 다

시 꺼내든 이유를 추정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것은 전체주의론의 이론적 적실성을 학문적으로 주장하고자 함이 아니라, 스탈린 체제에 대한 수사적인 공격을 위함일 것이다.

스탈린 실정 원인을 드러내는 작업과 더불어, 흘레브눅 저작의 또 하나의 주축이 되는 것은 그 실정 탓에 초래된 당대 소련의 참상과 고통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흘레브눅은, 본서의 장르가 한 정치가 개인의 전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면 중 많은 부분을 사회상과 사회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사적 서술에 할애한다. 여기서 그가 핵심적으로 이용하는 자료는 다양한 소련 시민들이 작성한 서간문과 투서이다. 이를 기초로 그는 먼저 농업집산화 정책이 야기한 농민들의 참담한 상황 및 1930년대 초의 기근 사태를 상세히 묘사한다. 농민들의 지위는, 흘레브눅의 표현에 따르면, “농노” 또는 국가에 완전히 예속된 상태로 떨어졌으며(162면), 기근이 덮친 소련의 농촌에는 영아살해나 식인행위와 같은 끔찍한 상황이 펼쳐졌다. 이런 모습들을 두고도 스탈린은 소련 사회와는 물론 정치권 내부와도 소통하지 않았다. 농촌의 실상은 그의 정책 변화에 별반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수많은 농민들의 편지들은 대부분 스탈린의 책상에까지 이르지도 못했다. 다음으로, 1930년대 말 대숙청이 야기한 피해 역시 흘레브눅이 자세히 다루는 부분이다. 그에 의하면, 이 대숙청이 본질적으로 당원이나 관료 등의 엘리트를 겨냥한 것이었다는 몇몇 서방의 학자들이 주장한 그 기간의 초반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sup>6)</sup> 이에 못지않게 중요했던 숙청의 후반기는 보다 넓은 계층과 민족 일반을 표적으로 하는 전반적인 테러였다. 그 결과, 전 인구의 3%에 해당되는 거대한 수가 소위 강제 노동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다. 강제 노동 수용소, 즉 굴락(Гулаг)은 스탈린 시대 소련 삶의 “가장 중대한” 부분이었다고 그는 선언한다(366면). 또한, 흘레브눅에 의

6) Sheila Fitzpatrick (2008), *The Russian Revolution*. The 3<sup>rd</sup>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하면, 대독 전쟁 초기의 대대적 군사적 피해, 그리고 1942년 초 소련군의 무모한 반격으로 인한 손실 등도 독단적인 스탈린 실정의 결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전후 1946-7년의 기근 역시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스탈린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것이었다. 그 직후의 화폐개혁으로 인한 대혼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흘레브늑의 주장이다.

흘레브늑에 따르면, 이 모든 참담한 결과들은, 전문가들이나 주변의 조언을 듣지 않고 본인의 세계관에 입각한 ‘나름의’ 확신만으로 정책을 강행했으며, 특유의 냉혹한 성격 때문에 그 모순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좀처럼 멈추지 않았던 스탈린 개인의 책임이 절대적이고, 심지어 유일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스탈린은 이 같은 실정 양산의 체제를 유지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또한 그 책임이 무겁다. 그는 혁명가라기보다는 “완고한 보수주의자”였다(406면). 스탈린이 사망한 직후,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이 곧바로 시작되었던 것은 이를 방증한다. 이렇게 볼 때, 스탈린 개인 그리고 그의 시대에 대한 향수는 역사적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철저한 스탈린 비판을 통해 21세기 러시아에서는 그 같은 실정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흘레브늑은 결론짓는다.

### III

최근 스탈린 향수와 더불어 그의 업적을 과대평가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나아가 이 현상이 푸틴 정권 정당화의 간접적인 기제로 작동하는 현재 러시아의 상황에서, 위와 같은 흘레브늑의 스탈린 신화 깨기 작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시도이다. 하지만 그는 이런 ‘현실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책의 학문적 질을 일부 희생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흘레브늑은 과거 냉전시대의 정치성 질은 스탈린 전기들의 서술을 연상시키는 자료의 선택적 이용, 비약과 억측, 맥락의 생략 등을 선뜻 감

수했다. 심지어 몇몇 경우에서 그는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또는 아예 문서 근거 없이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일례로, 1920년대 권력 투쟁 시점부터 이미 긴밀했다는 스탈린과 비밀경찰 간의 관계는 문서고 자료를 통해 입증되지 않았다. 전후, 전쟁 승리의 공을 독차지할 마음에 스탈린이 군 장성들을 질투했다는 서술은 스탈린의 독점적 권력욕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사용되었지만, 역시 문서 증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나아가, 흘레브눅은 서론에서의 약속과는 달리 학계에서 매우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되어 온 자료들을 무비판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특히 그가 스탈린의 냉혹함을 증명하고자 할 때, 이런 모습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앞서 언급된 공산주의자는 “손을 더럽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스탈린의 발언은 그가 서론에서 그토록 사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던 미심쩍은 회고록에서 뽑아낸 것이었다. 대숙청 기간 중의 스탈린의 ‘개인적’ 살해 사례라는 것도, 믿기 어려운 역사가 네베진(B. A. Небезин)<sup>7)</sup>이 편집한 자료집에 근거했다. 역으로, 흘레브눅은 자신 책의 ‘현실 정치적’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역사가들의 주장이나 자료는 매우 꼼꼼히(?) 따져서 부정하는 편의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일례로, 그는 말년의 레닌이 그의 “유언” 등을 통해 스탈린을 공격했다는 주장을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왜곡으로 보았던 모스크바 대학 정치사가 사하로프(B. A. Сахаров)의 이론은 근거 없는 것이라며 몰아 부쳤다.<sup>8)</sup>

이에 더해, 흘레브눅의 책에는 억지스런 주장과 비약의 예도 제법 많

7) 네베진은 흘레브눅 스스로가 비학문적이라 무시했던 소위 수보로프 테제의 열렬한 지지자이다. 수보로프 테제는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스탈린이 독일에 대한 선제공격을 계획했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말한다. 수보로프 테제에 관해서는 황동하(2003), 『Icebreaker』 Thesis: 1941년 소련의 대독 선제공격 계획설, 『독일연구』 5호.

8) 이는 흘레브눅의 전기와 거의 동시에 출판된 미 프린스턴 대학 코트킨(Stephen Kotkin)의 스탈린 전기 1편이 사하로프의 책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Stephen Kotkin (2014), *Stalin: Paradoxes of Power, 1878-1928* (New York: Penguin Books). 그리고 B. A. Сахаров (2003), «Политическое завещание» В. И. Ленина: реальность истории и мифы политики. Москва, 참조.

은 데, 그중 대표적인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흘레브눅은 스탈린이 그의 둘째 아들의 중등학교 내 비행을 나무랐던 교사와 그 학교장을 숙청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여기에 이용된 자료는 그 교사의 교육관에 대해 스탈린이 보낸 감사 편지뿐이었다. 알타 회담 당시, 미국과 영국 대표단에 대한 엄중한 검문을 스탈린의 반서방주의 감정의 소산이라고 본 것은 황당한 수준의 해석이었다. 내전 말기 소련 폴란드 전쟁에서의 패배 이후, 스탈린이 건의한 예비군 수립 안을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묘사한 부분은 저자의 군사 지식 박약을 드러낸 억측이었다. 스탈린 시대 소련 인물 중 “상당 부분”이 연행 경험이 있었다는 표현도 체제의 억압성을 다분히 인상주의적 수준에서 드러내기 위한 비학문적인 전략에 불과했다(434면).

또한, 흘레브눅의 전기에는 당대 소련이 처했던 국내외적 상황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은 채 스탈린의 정책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 결과 스탈린의 실정과 악행에 대한 규범적 비판은 수월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을 그 시대의 맥락 속에서 해석할 여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우선, 1920년대 권력 투쟁의 결과를 단지 스탈린 개인의 서기장으로서의 권력, 야비한 권모술수, 그리고 비밀경찰의 지원으로만 설명하려 했던 흘레브눅은 일부 학자들이 소련 문서고 자료 공개 이후 밝혀온 당시의 복잡했던 중앙당 상황과 중앙지방 관계의 중요성<sup>9)</sup>에 착목할 수 없었다. 둘째, 농업집산화를 스탈린이 모두의 반대를 위협으로 잠재우며 강행한 것으로 보는 흘레브눅의 입장으로는, 그 스스로가 인정한 지방 관료들의 이에 대한 열광적 반응을 해명하기 어렵다. 균형 잡힌 역사가라면 농업집산화 자체에 대한 정당성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 속에서 그것이 상상 가능하고 추진되었느냐를 함께 보여주어야 했다. 마찬가지로, 최근 연구들<sup>10)</sup>이 드러낸 대숙청 시기의 정치 및 사회적 맥

9) James Harris (1996), *The Great Urals: Regionalism and the Evolution of the Soviet Syste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참조.

락들을 생략한 채, 오로지 스탈린의 ‘범죄’에만 집중한 그의 서술은 몇몇 중요한 역사적 문제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었다. 특히, 소련 사회를 원자화시키고 파멸로 이끌고 갔다는 대숙청 직후에 벌어진 대독 전쟁에서 소련 시민들이 보여준 방위 의지를 설명할 공간은 좁다.

한편, 스탈린 실정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흘레브뉴이 사용했던 사회사적 방법은 그의 주장에 반례가 되는 경우를 스스로 자주 드러내기도 했다. 그가 소련 사회에 널리 퍼진 관행이라 인정했던 투서 문화, 즉 심지어는 굴락 내의 죄수들도 가지고 있었고 당국도 반관료주의 ‘투쟁’의 일환으로 독려했던 투서 보낼 권리는 그가 그린 스탈린 시대의 일방적인 위로부터의 압제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흘레브뉴이 보여준 전후 화폐 개혁 실시 과정에서의 하급 관료들의 악행과 비리는 그가 주장하는 스탈린 개인의 실정 책임론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이런 모습은 차라리 게티 등의 학자들이 펼쳤던 논리, 즉 ‘아래로부터’의 관료제적 혼란이 소련 사회 폐해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주장에 근거가 된다.<sup>11)</sup> 또한, 스탈린 지도부가 화폐 개혁 실시 직전 그 정책이 가져올 일

- 
- 10) 대표적인 예를 몇몇 든다면 다음과 같다. Sheila Fitzpatrick (1999), *Everyday Stalinism: Ordinary Life in Extraordinary Tim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J. Arch Getty (2002), ““Excesses are not permitted”: Mass Terror and Stalinist Governance in the Late 1930s,” *Russian Review* 61, no. 1; Wendy Z. Goldman (2007), *Terror and Democracy in the Age of Stalin. The Social Dynamics of Repres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vid R. Shearer (2009), *Policing Stalin’s Socialism: Repression and Social Order in the Soviet Union, 1924-1953*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aul Hagenloh (2009), *Stalin’s Police: Public Order and Mass Repression in the USSR, 1926-1941*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James Harris ed. (2013), *The Anatomy of Terror: Political Violence under Stal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11) J. Arch Getty (1985), *Origins of the Great Purges: The Soviet Communist Party Reconsidered, 1933-193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abor T. Rittersporn (1991), *Stalinist Simplifications and Soviet Complications: Social Tensions and Political Conflicts in the USSR, 1933-1953* (Philadelphia: Harwood).

반민들의 불만을 크게 우려했던 모습은 흐레브누크의 핵심 논지, 즉 스탈린은 사회와의 상호작용 없이 자신이 믿는 정책만을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관철시키는 인물이었다는 논지에 반례가 되는 셈이다.

#### IV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하여, 흐레브누크의 이번 저작을 흡사 소설을 방불케 했던 과거의 많은 스탈린 전기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들과 달리, 흐레브누크의 전기는 나름 객관적이고자 노력한 흔적들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다. 1905년 혁명 이후, 스탈린이 이증첩자로 활동했다는 몇몇 전기 작가들의 상상에 대해서 흐레브누크는 문서 근거를 가지고 이를 부정한다. 또한, 그는 키로프 암살을 스탈린의 조작극으로 보았던 일부 서방 학자들의 억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2차 대전 초기 스탈린이 나치에 대해 선제공격을 계획했다는 소위 수보로프 테제 역시 그는 학문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더욱이, 나치와의 불가침조약이 스탈린 팽창욕의 소산이었다는 견해, 또는 유럽의 전쟁을 일부러 유도한 것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도 흐레브누크는 스탈린 외교정책의 수세적 성격을 강조하며 이들을 적절히 논박하였다. 한국전쟁, 그리고 그 시기의 군비 증가가 새로운 세계대전을 준비하기 위한 스탈린의 획책이었다라고 주장했던 극단적 반공주의 시각과도 그는 함께 하지 않았다. 스탈린이 유대인 학살과 그들의 극동으로의 강제 이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추정에 대해서도 흐레브누크는 이에 대한 문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정하였다.

아마도 도이처의 고전<sup>12)</sup>을 예외로 한다면, 흐레브누크의 이번 저작은 지

12) Isaac Deutscher (1949), *Stalin: A Political Biograph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금까지 출판된 스탈린 전기, 특히 그의 전 생애를 다루는 전기들 중 가장 읽을 만한 것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그의 책이 훌륭한 학문적 수준에 있다거나, 또는 스탈린 전기의 결정판이 될 것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기존의 많은 전기들이 객관성과 문서 증거들을 결합한 주장들을 워낙 많이 쏟아낸 바 있었기에, 흘레브냥의 전기가 상대적으로 나아보이는 것뿐이다. 여전히 흘레브냥도 과거, 특히 냉전시대 스탈린 전기 작가들이 가졌던 공통적 한계, 즉 자료 이용의 자의성, 비약과 억측, 맥락 무시 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분명 현재의 러시아 상황, 특히 스탈린 노스텔지어 현상이 그가 보다 객관적으로 스탈린의 생애와 그 시대에 접근하는데 방해가 되었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스스로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스탈린 전기”라고 주장했고(18면), 많은 이들이 스탈린 전기의 새로운 고전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흘레브냥의 전기는 이 같은 상황 때문인지 그리 되지 못한 느낌이다.